

[신년특집] 기관장·지역 주요인사 신년인사

▲ 울산매일 | ⓒ 승인 2025.01.01 19:15 | □ 5면

정주여건 개선 매진 풍요로운 한해 소망

2025년, 새해의 출발선 다시 앞에 섰습니다.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정주여건 개선에 매진하며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문화·생활편의 시설 확충, 어른 아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젊은 축제 구현, 골목 상권 활성화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딛고 새해에는 더욱 높이 날아오르겠습니다. 새해에는 지역사회에 희망차고 따뜻한 소식이 더욱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중구청장

새로운 40년 스타트 힘찬 여정 응원 부탁

2025년 을사년 새해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울산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울산 남구 개청 40주년인 해이기도 합니다.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를 기반으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40년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 가겠습니다.

2025년에도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를 향한 우리 남구의 힘찬 여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동욱 남구청장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품격있는 동구 만들 것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새해의 새 기운을 담은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울산 시민과 동구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난해의 어려움을 모두 털어내고 새해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민 누구나 걱정 없이 일하면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며, 청년들은 마음껏 미래를 꿈꾸며, 어르신들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품격에 부끄럽지 않은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중훈 동구청장

작년 성과 기반으로 의미있는 변화 도모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는 기후대응 도시숲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울산숲 전 구간 조성을 마무리하며 기후변화 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북울산역세권이 가치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명촌과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자연재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천동 북구청장

지혜·변화 상징 새해 긍정적 변화 이끌 것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매일 애독자 여러분,

새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갑진년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울주군 공직자 모두가 더욱 지혜롭게 사업을 추진해 울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항상 울주군에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을사년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

감사 마음 담아 의정 활동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

"건강해, 행복해 그리고 감사해"

울산매일신문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21만 중구민 여러분 2025년 희망의 새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만복을 기원합니다.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말은 곧 행동이 되며, 행동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말하는 대로, 마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중구의회도 울산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경흠 중구의회의장

의회 역량 강화 노력 민생·경제 회복 진력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매일 독자 여러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8대 후반기 남구의회는 구민 행복·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활발한 연구단체 활동으로 의회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의회가 온전하게 1년을 보내는 마지막 해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굳은 각오와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기 남구의회의장

주민 참여·소통 강화 열린 의회 만들겠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팍팍한 동구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에도 동구의회는 작은 노력들이 지역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푸른 뱀의 지혜를 담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박경옥 동구의회의장

구정 견제 역할 충실 주민숙원 해결 노력

사랑하는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북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김상태 북구의회의장

현장 중심 의정 활동 군민 목소리 들을 것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5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울주군의 미래를 밝힐 가능성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기에, 더욱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합니다.

울주군의회도 의회 본연의 임무인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며,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그 뜻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울주의 내일이 더 밝고 희망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길영 울주군의회의장

사건·사고 신속·적극 대응 안심 울산 만들도록 최선

‘을사년, 푸른 뱀’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 내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신년을 맞이해 울산매일신문의 번창과 울산시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희망찬 한해를 소망합니다.

2025년에도 울산 경찰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관리는 물론,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및 지역 현안에 맞는 중요 사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푸른 뱀’은 풍요와 다산, 무한한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상징의 빛이 울산의 안전을 더욱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정의·공정 수호 최선 사회 약자 대변 앞장

엄중한 시기에도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으며, 우리 울산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025년은 도전과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곽지환 울산지방변호사
회장

전통·현대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선보일 것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간절곳의 찬란한 태양처럼,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울산의 희망차고 역동적인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뜻깊은 시점에 울산문화원연합회 장으로서 3년간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돼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문화원을 문화원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을 계승하며 울산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가치 있는 문화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울산문화원연합회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것입니다.



지종찬 울산시문화원연
합회장

예술 향유 다양한 기획 더 다가가는 한해 될 것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울산매일UTV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의 기대와 예술 향유를 위한 다양한 기획으로 여러분께 더욱 다가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 예술인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을 어떻게 녹여내 저마다의 예술세계를 구축하는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인 공연과 전시가 지면을 통해 존경하는 시민의 눈에 도달되도록 항상 지면을 할애 해주신 울산매일UTV가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희석 울산매일UTV 회장

문화도시 울산 거듭나기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예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문화도시 울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2025년이 밝았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울산이 문화도시 울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울산매일UTV도 다양한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과 청년 예술인들에게 문화 참여와 독려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길 바라며 울산의 문화예술이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교학 울산민예총 이사장



울산매일 iusm@iusm.co.kr